

신안해저유물발굴 (新安海底遺物發掘)

李 浩 官
〈文化財研究所藝能民俗研究室長〉

I. 서 언(序 言)

1975年 5월에 발견(發見)되어 1976年 10월부터 1984年 9월까지 장장 9개년간(個年間) 10회에 걸친 해저유물발굴작업(海底遺物發掘作業)을 종료(終了)하면서 본인이 발굴부장(發掘部長)으로 직접(直接) 참여한 작업(作業)에 대(對)한 것을 총정리(總整理)하여 대략(大略)의 개요(概要)와 중요유물등(重要遺物等)을 소개(紹介)하고자 한다.

신안해저유물(新安海底遺物)의 첫 발견된 동기는 이미 알고 있다 싶어 1975年 5월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全羅南道 新安郡 智島面 防築里) 앞바다에서 지도면우전리거주(智都面羽田里居住) 박창석씨(朴唱錫氏)와 망운면수동리거주(望雲面收東里居住) 최형근씨(崔亨根氏)에 의하여 어로작업중(漁撈作業中) 청자수병(靑磁水瓶) 3점(點)과 백자대발 백자(白磁大鉢 白磁)접시 잡유도호(雜釉陶壺), 청자잔대등(靑磁盞臺等) 7점(點)이 발견신고(發見申告)되어 처음으로 해저유물(海底遺物)에 대(對)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따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은 이듬해인 1976年 10月 26日부터 第 1次 발굴(發掘)을 시작하여 매년(每年) 해군(海軍)의 第 5150부대(部隊)의 적극적(積極的)인 협력(協力)과 지원하(支援下)에 1984年 9月 18日까지 10次的 발굴(發掘)을 실행(實行)하여 종료(終了)케 되었다.

특(特)히 이 지역(地域)의 해저상태(海底狀態)는 몹시 험난(險難)하여 만조(滿潮)때와 간조(干潮)때에 따라 해류(海流)의 속도차(速度差)가 심하고 해저면(海底面)은 평상시(平常時) 2.5노트이며 간조시(干潮時)에는 4.5노트의 유속(流速)을 갖고 있다. 또한 해면(海面)에서부터 70cm이하(以下)에서는 완전(完全)히 시계(視界)가 영(零)이 여서 수중촬영(水中撮影)이나 수중(水中) TV장치(裝置)는 불가능(不可能)하여 해중작업(海中作業)을 하는 해군(海軍)의 심해(深海)의 Diver들이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 발굴작업(發掘作業)을 실행(實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조건(條件)이었다.

1976年 10月 26日부터 11月 2日까지의 第1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11月 9日로부터 12月 1日까지의 第2次 발굴작업(發掘作業)은 정확한 위치와 유물산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였고 1977年 6월부터 7月까지 실시한 第3次 발굴(發掘)에서는 4개(個)의 철제(鐵製)Grid(각(各)2m

×6m)를 선체로 추정되는 곳에 설치하여 각 구역(各 區域)을 순서대로 발굴인양하는 작업과 해상(海上)의 바지선상에서는 Diver들의 상태 설명에 따라 추정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동시에 행하였고 1978年 6月 15일부터 8月 15일까지의 第4次 발굴(發掘)에서는 第3次 발굴지역 이외(發掘地域以外)의 전지역(全地域)에 철제(鐵製)Grid를 설치하여 전년도(前年度)와 동일한 발굴방법을 실시함과 동시에 침몰선박의 총길이와 선폭을 파악,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었고 또한 선체의 잔존부분에 대(對)한 상태파악과 선박구조에 대하여서 까지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대략 선체 내부에 격벽이 7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선폭은 약 7m이고 선체 길이는 약 28m가량 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수가 서북(西北)쪽을 향하여 침몰된 상태임도 확인되었다.

그후 1979年 6월부터 7월까지 第5次, 1980年 6월부터 8월까지 第6次, 1981年 6월부터 8월까지 第7次 발굴(發掘)까지는 3次, 4次 발굴시와 동일한 방법(方法)으로 발굴작업을 실시하면서 침몰선의 인양방법에 대한 자료와 상태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1982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個月間)의 第8次 발굴(發掘)에서는 선내(船內)의 유물은 물론 침몰선의 선체를 완전해체 인양하는 발굴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1983年 5월말(月末)부터 11月 25일까지 제9차 발굴작업은 침몰선체의 가장 중요시되는 용골(龍骨)을 인양하는 것을 비롯하여 잔여(殘余)선체편들을 완전히 해체 인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한편 Air Lift작업과 Survey작업으로 선체주변에 유실산재된 유물들을 수습 인양정리 하는데 있었다.

또한 1984年 6월부터 9月 18일까지의 第10次 발굴작업(發掘作業)인 최종작업(最終作業)에서는 해군(海軍)의 협조(協調)를 받아 선체의 좌우현측(左右舷側)과 선수(船首) 선미(船尾)등에 수십개의 기점을 설정하여 직경 10m의 씨클라인 작업으로 침몰선체 주변 정밀 탐색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류(潮流)에 따라 흩어진 유물들을 저인망어선을 이용한 광역조사를 해군(海軍)의 레이더 지시와 합동(合同)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최종 단계인 9月 12일부터 9月 18일까지 7일간(日間) 작업을 유자망(꽃게 잡이그물) 행망(꼬막 잡이 그물), 저인망(고데구리)으로 선체 침몰 지점에서 조류방향으로 약(約) 2km까지 광역조사를 실시한 것이 특(特)히 주목(注目)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9년에 걸친 발굴작업서 인양된 유물과 선체편들을 살펴오면

청자류(靑磁類)	12,359점(點)
백자류(白磁類)	5,303점(點)
흑유류(黑釉類)	506점(點)
잡유령(雜釉領)	2,305점(點)
백탁유류(白濁釉類)	188점(點)
금속류(金屬類)	729점(點)
석재류(石材類)	43점(點)
기 타(其他)	574점(點)

으로 총(總) 22,007점(點)이며 동전(銅錢)은 28t 18kg이고 자단목(紫檀木)은 1017본(本)에 선체편(船體片)은 총(總) 445편(片)(용골포함(龍骨包含))이나 되는 막대한 량의 유물이 출토(出土)인양되었고 이들 유물중(遺物中) 일부(一部) 중요(重要)한 것은 이미 한일고대문화전(韓日古代文化展)에 신안유물(新安遺物)로서 전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여러 종류의 도록(圖錄)과 수편의 논문 등으로 부분적인 소개도 된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만 1차(次)에서 10차(次)발굴까지의 출토인양(出土引揚)된 유물(遺物)들을 중심(中心)하여 문제시되고 중요한 점만 개관하여 보고 발굴(發掘)에 관한 것과 편년(編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간단

히 소개하여 언급(言及)하고자 하는데 있다.

II.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1. 第1,2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1次는 1976年 10月 26일부터 7일간 안에 걸쳐 112점의 유물을 인양하였고 第2次는 11月 9일부터 22일간(日間)에 걸쳐 1884점의 유물을 인양하였으며 침몰선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케 된 바 임자도(荏子島)에서 4km, 도덕도(道德島)에서 2.5km되는 북위(北緯)125°05' 6", 동경(東經) 35. 01' 5"의 합치(合致)되는 지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때 발굴 인양된 유물중에는 청자류(靑磁類) 1253점(點), 백자류(白磁類) 441점(點), 흑유류(黑釉類) 56점(點), 잡유류(雜釉類) 32점(點), 백탁유류(白濁釉類) 18점(點), 금속류(金屬類) 12점(點), 기타 169점(點)에 동전(銅錢) 6088점(點)이 된다.

특(特)히 동전중(銅錢中)에는 개원통보(開元通寶)를 비롯하여 28종(種)에 달하였고 은제품중(銀製品中) 은제완구연부(銀製碗口緣部)에 「서삼나(徐三那)」라는 타자명문(打字銘文)이 보이고 있고, 도자기류중(陶磁器類中) 청자선조문(靑磁線條文)항아리의 기대(器臺)밑에는 묵서(墨書)로 「원자칠십삼호□(元子漆拾參號□)」라는 기명(記銘)한 것들을 발견케되어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되었다.

2. 第3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3次 발굴(發掘)은 1977年 5月서부터 2개월간(個月間) 실시(實施)하였으며 第1次, 2次 발굴(發掘)때와는 달리 해중(海中)의 유물분포도(遺物分布圖) 작업(作業)이 불가능(不可能)하기 때문에 철제(鐵製) Grid(각(各)2m×6m)를 선체(船體)로 추정되는 위치상에 설치하여 Diver들과 Barge 선상(船上)의 발굴요원(發掘要員)들과 긴밀한 협조와 지시에 의해 각 Grid내(內)의 유물분포상황(遺物分布狀況)을 단장(團長)과 발굴부장(發掘部長)들의 지시(指示)에 따라 Barge선상(船上)에서 도면에 기입작성(記入作成)하는 것으로 하였다.

물론 이 방법은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유물의 분포상태 및 선적 상태와 선체의 규모를 확인하는데 현장의 상황으로는 이 이상의 방법(方法)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인양된 유물중에서는 청자류(靑磁類) 1900점(點), 백자류(白磁類) 1866점(點), 흑유류(黑釉類) 56점(點), 잡유류(雜釉類) 604점(點), 백탁유류(白濁釉類) 74점(點), 금속류(金屬類) 264점(點), 석재류(石材類) 4점(點) 기타(其他) 138점(點), 총 4906점(點) 자단목(紫檀木)과 동전류(銅錢類)가 다량(多量) 인양되었으며 특(特)히 도자기(陶磁器)에 있어서는 내벽(內壁) 또는 내저부(內低部)와 외부(外部)의 기대부분(器臺部分)에 묵서(墨書)로 「상색백구(上色白甌)」 「상색청반(上色靑盤)」 「십을(十乙)」 등(等)의 명문(銘文)이 있는가 하면 청자음각모단연당초문(靑磁陰刻牡丹蓮唐草文)점시의 기저부(器低部) 내면(內面)에 「사명수부공용(使命帥府公用)」이라는 명문(銘文)이 음각(陰刻)으로 각명(刻銘)되어 있고 백자종류(白磁種類)에 있어서도 구연부(口緣部)에 은구(銀口)를 장식(裝飾)한 상당량(相當量)의 자기류(磁器類)와 철사유(鐵砂釉), 흑유계통(黑釉系統)의 자기(磁器), 그리고 철반청자등(鐵班靑磁等) 우수한 도자기류(陶磁器類)가 다량(多量)으로 발굴인양(發掘引揚)되었고 동전

류(銅錢類)에 있어서도 오수전(五銖錢), 희영통보(熙寧通寶), 지대통보(至大通寶)등 28종류(種類)의 동전(銅錢)과 다량(多量)의 은정(銀錠), 연정(鉛錠) 주석정등(朱錫錠等)의 금속원광제품(金屬原鑛製品)이 인양(引揚)되었다.

이 이외(以外)에 완전(完全)한 상태(狀態)의 본정상자(本錠箱子)와 남방계(南方系)의 호초(胡椒), 계피등(桂皮等)을 비롯한 유종(類種)의 과핵(果核)과 향목(香木)으로 추정되는 목재등(木材等)이 인양(引揚)되므로서 선박의 항해성격과 목적 및 구조 등을 파악 확인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인양된 도자기류에서는 요별(窯別)로 분류하여 보면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청자류(靑磁類) 경덕진요(景德鎮窯)와 길주요계(吉州窯系)의 청백(靑白), 백자류(白磁類) 조요계(釣窯系)의 화분류(花盆類)와 백탁유약(白濁釉藥)의 자기류(磁器類) 자주요계(磁州窯系)의 백유흑화자기류(白釉黑華磁器類) 건요계(建窯系)의 천목(天目)과 흑유자기류(黑釉磁器類)와 관요계(官窯系)의 백자류(白磁類) 정요계(定窯系)의 백자류등(白磁類等)을 위시하여 칠기유등(漆器類等)이 완전(完全)한 상자(箱子)속에 적하당시(積荷當時)의 모습 그대로 유별(類別)로 포장되거나 또는 혼합(混合)된 상태로 인양되어 중국각지(中國各地)의 역대저명(歷代著名) 요지(窯地)에서 생산(生産)된 것들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더욱 주목(注目)을 끌게 되었다. 특히 발굴이 끝난후 서울에서 국제(國際)세미나가 개최되어 국내외(國內外) 저명학자(著名學者)들이 참석하여 유물(遺物)의 유별성격(類別性格)과 선박의 항해 목적과 목적지 등을 발표(發表)하였다. 외국(外國)의 학자들로는 영국의 알버트 빅토리아 박물관장 홍콩, 대만고궁박물관 도예전문가 미국의 메트로포리탄 미술관 도예 전문가 동경박물관 도예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각자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문헌사적(文獻史的)인 측면에서 당시의 공무역(公貿易)과 사무역(私貿易)에 대(對)한 것도 국내외학자(國內外學者)들이 고증(考證)하는데 노력하였다.

3. 第4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4次 발굴(發掘)은 1977年 6月부터 2개월간(個月間) 실시(實施)한 것으로 第3次 발굴(發掘)에서 실시하였던 4개(個)의 철제(鐵製) Grid이외에 침몰 선체를 전부(全部) 덮을 수 있는 잔여(殘餘) Grid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작업에 따라 선박의 총길이와 선폭을 파악함과 아울러 명문(銘文)이 있는 도자기와 목제(木製) 및 금속류(金屬類)를 인양하여 유물의 절대년대(絕對年代)를 규정하며 동시에 침몰 선박의 국적과 선원의 신분 등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또한 해저면에 잔존한 선체의 파악 그리고 수중촬영(水中撮影)과 수중(水中) TV 카메라 촬영 등을 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험적인 목적도 갖고 있었으며 교역선(交易船)의 하물(荷物) 선적내용(船積內容)과 선수(船首)와 선복(船腹), 선미 부분(船尾 部分)에 선적(船積)한 교역품(交易品)의 종류별(種類別) 내용(內容)도 확인(確認)하는데도 있었다.

그리고 해양환경조사(海洋還境調査)를 병행(併行)하여 해류(海流)의 속도(速度) 탁도(濁度)의 측정(測定), 해중부유물(海中浮遊物)의 종류(種類), 구각류분별(具殼類分別), 뱀의 밀도(密度) 등(等)도 파악(把握)되었으며 특(特)히 장차 선체인양이라는 작업을 가정해 볼 때 Air Lift사용과 Water Zet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작업 진도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도도 하여보는데 뜻이 있었고 또한 선박의 출발지점이 어디였을 것이냐 하는 것도 판명(判明)하는데 목적(目的)을 두었다.

이상의 여러 목적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결과 청자류(靑磁類) 2787점 백자류(白磁類) 1289점(點), 흑유류(黑釉類) 96점(點), 잡유류(雜釉類) 623점(點), 백탁류(白濁類) 63점(點), 금

속류(金屬類) 86점(點) 석제류(石製類) 11점(點), 기타(其他) 91점(點), 총(總) 5046점(點)이 인양되었으며 선수부분(船首部分)과 선복(船腹), 선미부분(船尾部分)에 따라 교역품(交易品)의 선적내용(船積內容)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어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두개골(頭蓋骨)의 출토(出土)는 선원(船員)의 국적(國籍)과 인종(人種)을 판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며 두개골(頭蓋骨)의 측정(測定)으로 중국선원(中國船員)임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제(日本製)의 유물(遺物) 10여점(餘點)이 인양된 것은 중요(重要)한 점(點)이라 할 수 있겠고 또한 취사용구(炊事用具)의 유물(遺物)이 다량(多量)으로 인양된 것도 특이하다.

77年度 第3次 발굴(發掘)에서는 고려청자(高麗靑瓷) 3점(點)이 인양(引揚)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었는데 4차발굴에서는 또다시 일본제유물(日本製遺物)이 인양됨으로인해 더한층 교역선의 교역 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하였으며 교역품의 시대 규정도 지대통보(至大通寶)(AD.1308~1311)의 동전(銅錢)이 인양되어 대략 1311년경(年頃)까지로 하한시대(下限時代)를 추정하였으나 4차에서는 흑칠완기저부(黑漆碗器低部)에 「신미혜당 진만일숙조(辛未兮塘 陳萬一叔造)」라는 주서(朱書)로된 명문(銘文)이 있어 좀더 정확히 정할수 있게 되었다.

신미(辛未)는 1211年, 1271年, 1331年, 1391年으로 보이나 동양도자편년상 청화백자(靑華白磁) 발생시기(發生時期)를 대략 1320年代로 현재(現在)까지 보고 있는 통설에 따른다면은 선적된 도자기류 중에는 청화백자(靑華白磁)가 1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하한(下限)은 1331년의 신미(辛未)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1320年代 발생한 청화자기(靑華磁器)가 급히 교역품(交易品)으로 10년내(年內)에 등장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며 구하기 힘든 청화(靑華)안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며 교역품에까지 이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보는데서 1331년의 하한(下限)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있다.

한편 교역선의 출발지점(出發地點)이 어디였을까하는 것은 학계(學界)의 큰관심사 였는바 4차 발굴에서 청동제추(靑銅製錘)가 인양(引揚)되어 이 추 표면(錘 表面)에 양각(陽刻)으로 「경원로(慶元路)」라는 명문(銘文)이 있어 교역선은 양자강(楊子江) 남쪽 하구(河口)부근에 있는 원대(元代)의 경원항구(慶元港口)에서 출발(出發)하였다고 본다.

이 지역이 명대(明代)에 와서는 영파(寧波)로 개명(改名)된 기록(記錄)이 있어 더욱 확실한 점을 굳게 하였다.

해양상태(海洋狀態)는 유속(流速)의 차(差)가 심하여 평상시(平常時) 해저면(海底面)은 2.5돛트이고 간조시(干潮時)에는 해면(海面)이 11돛트에 해저(海底)가 4.5돛트이고 해면에서 70cm이하의 완전(完全)히 시계(視界)가 영(零)임이 판명되어 수중촬영(水中攝影)이나 수중(水中) TV는 불가능(不可能)함을 알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점등을 파악케 되었고 이와 같은 환경조건하에서 1차, 2차, 3차 때와 같은 유물(遺物)들이 인양 정리된 바 이 중(中)에서 중요(重要)하고 대표(代表)될만한 것들은 청자류(靑磁類)의 정병(淨瓶), 수반(水盤) 화형대반 대완(花形大盤 大碗), 장경수병(長頸水瓶), 음각매화문완(陰刻梅花文碗), 삼족향로대(三足香爐大)항아리 등이고 백자류(白磁類)에서는 관이수병 마상배(管耳水瓶 馬上杯), 음각모란문매병(陰刻牡丹文梅瓶)등이 대표(代表)가 된다. 흑유(黑釉), 천목류계통(天目類系統)에서는 소완(小碗), 대항(大缸), 완(碗), 수병(水瓶), 양각모란문매병(陽刻牡丹文梅瓶)등이나 특히 양각모란문매병(陽刻牡丹文梅瓶)은 신안유물중(新安遺物中) 유일(唯一)한 것이며, 또한 흑유대(黑釉大)항아리 뚜껑 이면에는 묵서(墨書)로

「강사(綱司)」라고 기록(記錄)되어 선장(船長)의 개인용구(個人用具)였음도 알게 되었다. 또한 칠기류(漆器類)에서는 여러 가지 소형(小形), 중형(中形)의 흑칠완(黑漆碗)이 나왔으나 이들중(中)에 저부(低部)에 「신미혜당(辛未兮塘), 진만일숙조(陣萬一叔造)」라 주서명문(朱書銘文)이 있어 연대결정(年代決定)에 중요한 자료로 되었고 원형(圓形) 및 장방형(長方形)의 먹에는 「서상향제(徐祥鄉製)」 「수봉친제(秀峯親製)」라고 양각명기(陽刻銘記)된 것이 있어 문방구류(文房具類)도 교역품(交易品)에 포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특(特)히 발굴유물중(發掘遺物中) 일본유물(日本遺物)에는 고뢰호계(古瀨戶系)의 청자매병(靑磁梅瓶)과 칠회추초문주칠완(漆繪秋草文朱漆碗) 3점(點) 애명왕상(愛明王像)과 루각(樓閣)소나무 파도문(波濤文) 조거정(鳥居井)등을 조각(彫飾)한 귀유(龜鈕)의 화형경쌍학문(花形鏡雙鶴文) 방형경(方形鏡), 일본도(日本刀)의 칼코(鎧)드잉 출토(出土)되어 더욱 주목(注目)케 되었다.

이 이외에도 인골(人骨)과 과핵(果核)등이 출토 인양(出土引揚)되었으며 동전(銅錢)은 건원중보(乾元重寶)를 비롯하여 지대통보(至大通寶)까지 84종(種)이나 된다.

동전(銅錢)의 전면(前面)은 서체(書體)가 해서(楷書), 초서(草書), 진서(篆書), 예서(隸書)등으로 되어 있고 배면(背面)에는 「십(十)」, 「일(一)」, 「삼(三)」, 「구(口)」, 「원(元)」, 「오(五)」, 「유(酉)」 등(等) 자호(字號)가 기입(記入)되어 주조년대(鑄造年代)와 순열(順列)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4. 第5次～第7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5次에서부터 第7次까지의 발굴인양작업(發掘引揚作業)은 第4次 발굴작업(發掘作業)에서 행(行)하던 방법(方法)대로 계속하면서 주변 Suvey와 선체 인양에 대한 예비조사와 준비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출토 유물의 종류와 특징도 대략 유사하였다.

第5次 발굴은 청자류(靑磁類) 76점(點), 백자류(白磁類) 21점(點), 흑유류(黑釉類) 29점(點), 잡유류(雜釉類) 101점(點) 금속류(金屬類) 6점(點), 총 233점(點)에 자단목(紫檀木) 203본(本)이 출토인양(出土引揚)되었고 일본장기(日本將棋)의 계마패(桂馬牌)가 출토되었다.

第6次발굴에서는 청자류(靑磁類) 1112점(點), 백자류(白磁類) 200점(點), 흑유류(黑釉類) 30점(點), 잡유류(雜釉類) 66점(點), 백탁류(白濁類) 2점(點), 금속류(金屬類) 31점(點), 석제류(石製類) 2점(點) 기타(其他) 18점(點) 총(總) 1461점(點)에 자단목(紫檀木) 20본(本)과 선체편(船體片) 8편(片)이 인양 정리되었다.

第7次발굴은 청자류(靑磁類) 1528점(點) 백자류(白磁類) 668점(點), 흑유류(黑釉類) 63점(點), 잡유류(雜釉類) 143점(點), 백탁류(白濁類) 17점(點), 금속류(金屬類) 105점(點), 석제류(石製類) 5점(點) 기타(其他) 35점(點), 총 2564점(點)과 자단목(紫檀木) 3본(本) 선체편(船體片) 18편(片) 발굴인양되었다.

특(特)히 第5次에서부터 第7次 발굴(發掘)에 이르기까지 예비(豫備) 및 준비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에 따라 침몰선체는 전체(全體)를 동시에 인양함이 불가능함을 확인케 되어 7次 발굴에서는 점차로 부분해체 또는 완전해체하여 인양(引揚)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어 第8次 발굴에서부터는 선체를 Piece by Piece로 인양하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는 와이야 로-프로 잔여선체를 일시에 인양한다는 발굴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체주변에 상당량의 유물이 산재되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선체인양과 동시에 주변 Suvey를 정밀하게 조사확대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第1次에서 第7次발굴시까지 출토(出土)인양된 도자기도 막대하나 이에 못지 않게

동전류도 3 ton이나 되는 다량(多量)이라는 점이 중요시 되게 되었다.

5. 第8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8次 발굴작업(發掘作業)은 1982年 5월부터 9월말(月末)까지의 장기간 발굴작업으로 전년도인 第7次 발굴시에 결정한대로 선체인양방법을 Piece by Piece로 인양하는 방법(方法)을 채택하여 작업을 실시하면서 선체 내부 구조와 외부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함과 동시에 선체 내외와 주변에 분포 산재된 유물을 수습 인양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어 실시한 결과 청자류(靑磁類) 983점(點), 백자류(白磁類) 328점(點), 흑유류(黑釉類) 41점(點), 잡유류(雜釉類) 220점(點), 백탁류(白濁類) 6점(點), 금속류(金屬類) 109점(點), 석제류(石製類) 9점(點), 기타(其他) 45점(點)에 총(總) 1741점(點)의 유물(遺物)과 동전(銅錢) 18ton, 자단목(紫檀木) 452본(本), 선체편(船體片) 176편(片)이 인양(引揚)되었다.

특히 장(長) 735cm, 폭(幅) 67cm, 후(厚) 52cm의 선미부분(船尾部分) 용골(龍骨)이 인양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목간(木簡)이 279점(點)이나 인양 수습된 사실이다. 이로서 80년도(年度)부터 82年 8次 발굴시(發掘時)까지 총(總) 328여점(餘點)의 목간(木簡)이 출토 인양되어 이들 목간(木簡)의 명문(銘文)에 의해 침몰선의 연대(年代)로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이 이외에 도자기류에서 주목되는 유물은 6점(點)의 백자철화문(白磁鐵畫文)접시로서 접시내면에 철채(鐵彩)로 매화모란(梅花牡丹), 연화(蓮花) 천록(天鹿), 토문(兔文) 등(等)이 동양화(東洋畫)의 수묵화기법(水墨畫技法)인 몰골법(沒骨法)의 강한 필법(筆法)으로 원대무역자기(元代貿易磁器)에 시도한 것이 현재까지로서는 유일(唯一)하고 중요(重要)한 것으로 본다.

6. 第9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9次 발굴작업(發掘作業)은 1982년도(年度) 第8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로 선체를 완전히 해체인양하는데 주목적(主目的)을 두었고 금반 발굴(今般 發掘)로 신안해저유물발굴작업(新安海底遺物發掘作業)은 거의 끝나는데도 목적(目的)을 두었다. 이와같은 사항에서 第9次 발굴도 전년도와 같이 1983年 5月 29일부터 11月 30일까지 약(約) 5개월간(個月間)의 장기 발굴을 해군(海軍)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아래 실시하여 많은 유물과 선체편을 인양하였는바 그 결과는 청자류(靑磁類) 261점(點), 백탁류(白濁類) 3점(點), 금속류(金屬類) 55점(點), 석재류(石材類) 2점(點), 기타(其他) 25점(點), 계(計)945점(點)이며 동전(銅錢)은 6ton, 자단목(紫檀木) 334본(本), 선체편(船體片)이 236편(片)으로서 82년도(年度)에 인양된 선미측용골(船尾側龍骨)이외 선수측잔여용골(船首側殘餘龍骨)(1714cm)을 완전히 인양하였다.

이로서 전체용골의 길이는 2,449cm였음이 확인되었고 선복부(船腹部)인 중간부분(中間部分)의 용골이 약간만곡(若干彎曲)되어 있음도 확인되었다. 특(特)히 용골(龍骨)의 접합연결부분(接合連結部分)에서는 건축물(建築物)의 상량식(上樑式)때 풍습(風習)과 같이 기물(器物)과 유물(遺物)을 삽입(插入)하는 식(式)의 형태(形態)를 확인케 된 것이 큰수확이며 접합연결부분(接合連結部分)에서는 동경(銅鏡)과 동전(銅錢) 그리고 종류미상(種類未詳)의 과핵(果核)을 여러개(대략 7개) 원공(圓孔)속에 투입(投入)하였던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외(以外) 도자기 류중에서 중요한 유물은 20661여점의 도자기중에서 볼 수 없었던

오직 유일한 청백자양각 쌍엽시문(靑白磁陽刻 雙葉時文)접시가 출토(出土) 인양되었다.

이 접시 내면 바닥에는 쌍엽(雙葉)에 진사유(辰砂釉)를 시유(施釉)하고 엽단(葉端)과 여러 곳에 또 다시 녹색유약(綠色釉藥)을 연하게 시유(施釉)하였다.

또한 쌍엽상(雙葉上)에는 길은 철사유약(鐵砂釉藥)으로 「유수하우급(流水何尤急) 심궁곶전폐(深宮嶼田閉)」이라는 오언한시(五言漢詩)를 명기(銘記)한 것이 특색(特色)이다.

그리고 82년도(年度)와 마찬가지로 목간(木簡) 36점이 출토(出土)되어 계(計) 364점이나 되는 목간(木簡)을 이번 신안해저발굴(新安海底發掘)에서 수습케 되었고 여타(餘他) 도자기와 유물들은 현재까지 발굴(發掘)인양된 것들과 별(別)로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7. 第10次 발굴작업(發掘作業)과 중요유물(重要遺物)

第10次 발굴(發掘)은 第9次의 최종발굴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총정리 발굴작업으로 1984年 6月 1일부터 9月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히 9月 13일부터 9月 17일까지의 작업은 최종 현지 해저면을 확인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상의 10次 작업은 이미 인양한 선체의 좌우현측(左右舷側)과 선미 선수측(船尾 船手側)의 해저면(海底面) 뿔속에 누락 산포된 유물을 여러 기점을 설정하여 씨클라인(직경 10m)작업으로 살살이 흘러내는 정밀조사를 행하였고 또한 최종확인조사인 9月 13일부터 9月 17일까지는 해군(海軍)의 지원함(支援艦)레이다의 지시에 따라 침몰 선체주변 정밀 탐색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조류에 따라 흩어진 유물들을 저인망어선을 이용한 광역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뿔속깊이 묻혀있는 광역지구를 꽃게잡이 그물을 가춘 유자망어선과 꼬막잡이 그물을 가춘 행망어선 그리고 고데구리어선 등으로 선체침몰지점에서 조류방향으로 약(約) 2 km까지 광역조사를 실시하고 9년간(年間) 10次的 발굴조사(發掘調査)를 드디어 끝마쳤다. 이 때 인양된 유물은 청자류(靑磁類)가 1707점(點), 백자류(白磁類) 183점(點), 흑유류(黑釉類) 74점(點), 잡유류(雜釉類) 49점(點), 백탁류(白濁類) 5점(點), 금속류(金屬類) 14점(點), 석재(石材) 6점(點), 기타(其他) 16점(點) 계(計) 2054점(點)이며 동전(銅錢)은 18kg에 자단목(紫檀木)이 5본(本), 선체편(船體片) 4편(片)이 인양정리(引揚整理)되었다.

Ⅲ. 중요유물(重要遺物)

1. 목 간(木 簡)

第3次 발굴작업시(發掘作業時)부터 완전상자(完全箱子) 또는 일부파양(一部破壞)된 상자내(箱子內)에서 물표(物標)와 유사(類似)한 표찰(標札)이 나왔으나 82년도(年度) 第8次 발굴작업(發掘作業)에서는 328점(點), 83년도(年度) 第9次 발굴작업(發掘作業)에는 목간(木簡)이 36점(點) 계(計) 364점(點)에 이르는 다량(多量)의 목간(木簡)이 발굴인양(發掘引揚)되었다. 이들 목간(木簡)의 전후면(前後面)에는 묵서(墨書)로 문자(文字)를 기입(記入)하거나 한면(面)에만 묵서(墨書)한 것등 여러 종류가 있는 바 그 내용(內容)은 「강사(綱司)」라고 수결(手決)한 것도 있고 「오월 십일일(五月十一日)」이란 일자(日字)를 기입(記入)한 것도 있으며 「십관(十貫)」 「진피오십오근(陳皮五拾五斤)」(후면(後面)) 「보지치삼년육(寶至治三年六)

□」(전면(前面)) 「대전오관(大錢伍貫)」 「십일관(拾壹貫)」이란 중량(重量)과 연대(年代)를 표시(表示)할 것도 보인다. 그 이외(以外)에 「십이문(十二門)」 「십이내(十二內)」 「자철(子哲)□」 「원인(元仁)□□」 「일전조미(一田早米)」 「감초사랑(甘草四郎)」 「본다이 지(本多二之)」 등(等)의 인명(人名)과 유사한 묵서(墨書)도 보인다. 특(特)히 주목(注目)되는 것을 「지치삼년육월일일(至治三年六月一日)」, 「동복사(東福寺)」라는 묵서(墨書)가 상당히 중요(重要)한 내용(內容)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지치삼년(至治三年)은 원(元)의 영종(英宗)이 죽고 진종(晉宗)이 즉위(即位)한 때이고 고려(高麗)로서는 충숙왕(忠肅王) 10년이고 서기 1323년에 해당된다. 이로서 침몰선(沈沒船)의 선적하물(船積荷物)의 연대(年代)와 출발일(出發日)등(等)을 규명(規明)하는데 「신미혜당(辛未兮塘) 진만일숙조(陳萬一叔造)」라는 주서명(朱書銘)과 지대통보(至大通寶)와 함께 가장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는 절대적(絕對)인 유물(遺物)의 하나로 본다. 또한 날자의 기록(記錄)에서는 5월과 6월이 대부분이며 6월을 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목간(木簡)의 형태도 단책형(短冊形)이라는 점이다. 이들 목간이외(木簡以外)에 일본장기구(日本將棋駒(삽(插)1))이 수십점출토(數十點出土)되어 관심을 끌게 되었다.



2. 동 전(銅 錢)

1976년도(年度)부터 1984년 9월 18일까지 전체인양(全體引揚)된 동전(銅錢)은 총(總) 28ton 18kg이라는 막대(莫大)한 량(量)의 동전(銅錢)이 선체내(船體內)에서 다른 금속류(金屬類)와 함께 발굴인양(發掘引揚)되었다. 이 중(中) 1차에서 3차까지의 동전(銅錢)은 이미 학계(學界)나 학술보고서(學術報告書)로서 소개(紹介)되었으나 82년에서 83년의 것은 보존처리과정(保

存處理過程)에 들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대략 83여종류(餘種類)이나 동일(同一)한 연호(年號)의 동전(銅錢)이라도 자체(字體)가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전의 대략을 보면 가우원보(嘉祐元寶), 가우통보(嘉祐通寶), 가정통보(嘉定通寶), 개원통보(開元通寶), 건원중보(乾元重寶), 경덕원보(景德元寶), 경우원보(景祐元寶), 경정원보(景定元寶), 만국통보(萬國通寶), 대관통보(大觀通寶), 대정통보(大定通寶), 명도원보(明道元寶), 상부원보(祥符元寶), 상부통보(祥符通寶), 선화통보(宣和通寶), 성송원보(聖宋元寶), 소성원보(紹聖元寶), 소희원보(紹熙元寶), 송원통보(宋元通寶), 순화원보(淳化元寶), 순희원보(淳熙元寶), 원부통보(元符通寶), 원우통보(元祐通寶), 원풍통보(元豐通寶), 정융원보(正隆元寶), 정화통보(政和通寶), 지도원보(至道元寶), 지화원보(至和元寶), 천성원보(天聖元寶), 천희통보(天禧通寶), 치평원보(治平元寶), 치평통보(治平通寶), 함평통보(咸平通寶), 황송통보(皇宋通寶), 희영원보(熙寧元寶), 희영중보(熙寧重寶), 소정통보(紹定通寶), 지대통보(至大通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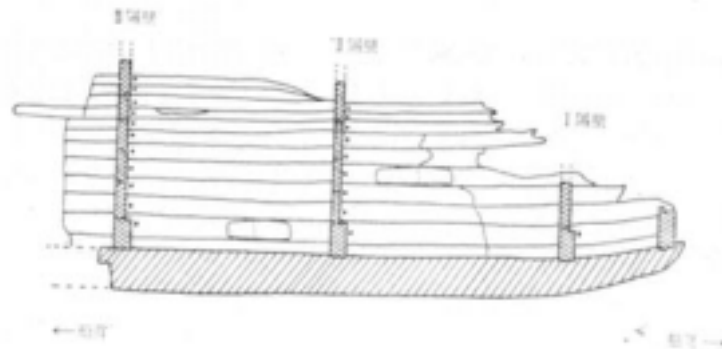


圖 2 I II III IV 區域右舷橫斷面圖

圖2 I II III IV 구역우현 횡단면도(區域右舷橫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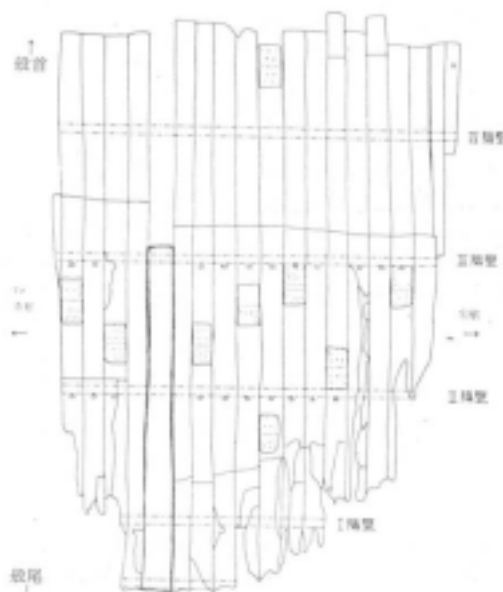


圖 2 I II III IV 區域平面圖

圖2 I II III IV 구역평면도(區域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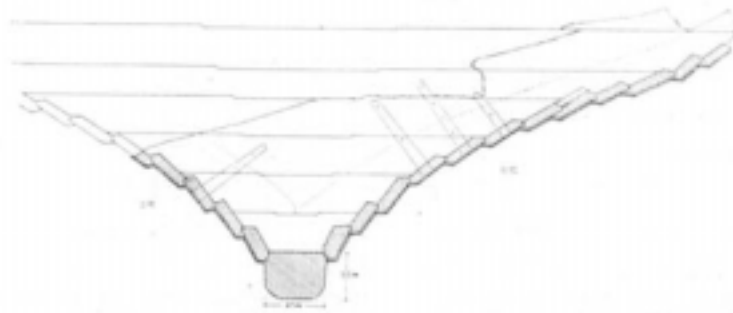


圖 3 Ⅲ隔壁斷面圖

圖3 Ⅲ격벽단면도(隔壁斷面圖)

등(等)의 종류(種類)였으나, 최하연대(最下年代)로 떨어지는 것은 지대통보(至大通寶) (AD.1310年) 이하(以下)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유물(遺物)의 하한년대(下限年大)를 지대통보(至大通寶)에 기준하여 추정(推定)하였다.

이들 동전이외(銅錢以外)에도 많은 금속제품(金屬製品)이 있었으나 그중(中) 금속정(金屬錠)으로 보았던 금속류(金屬類)가 분석결과(分析結果) 주석(朱錫)으로 밝혀진 것도 주목(注目)되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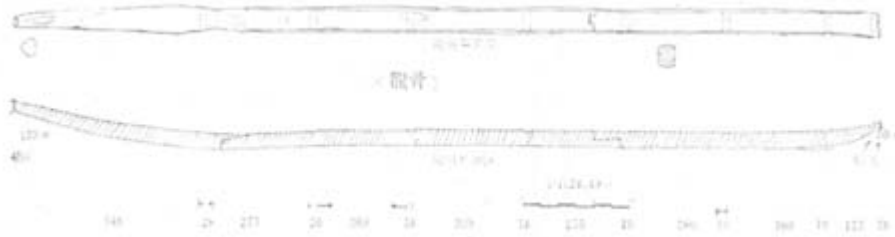
IV. 선체해체인양 (船體解體引揚)

1977년도(年度)인 第3次 발굴시(發掘時)에 철제(鐵製) Grid를 선체(船體)위에 설치(設置)해 선박(船舶)의 크기를 대략(大略) 길이 28.4m 폭(幅) 6.6m 정도(程度)에 선체내 격벽(船體內隔壁)은 10여개(餘個)로 구분(區分)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1978년부터 해체인양(解體引揚)하는 방법(方法)에 따라 작업(作業)을 하여본 결과 격벽(隔壁)은 7개부분(個部分)이었고 선수(船首)는 격벽(隔壁)이 없고 사행능골(斜行肋骨) 2개(個)가 있는 특이(特異)한 구조(構造)의 선체였다. 이와같은 결과(結果)에 따라 해체인양작업(解體引揚作業)의 순서를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부터 第4 격벽간(隔壁間)까지의 용골(龍骨)과 좌우현(左右舷)의 현판(舷板)과 방현판(防舷板) 그리고 선수(船首)의 4개(個) 능골구간(肋骨區間)의 용골(龍骨)에서 우현부재전부(右舷部材全部)를 인양(引揚)하였다. (插 2)

인양(引揚)된 선미측 용골(船尾側 龍骨)은 폭(幅) 67cm, 후(厚) 52cm되는 방형용골(方形龍骨)로서 첨저형(尖低形)에 좌우현(左右舷)쪽으로 각각(各各) 12판(板)의 외판(外板)이 클링커식(式)으로 겹쳐붙인 선체(船體)였음을 확인케 되었으나 우현(右舷)은 현재 7판(板) 정도는 부식되어 없어지고 4판반(板半)정도만이 해중(海中)빨속에 잔존(殘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런 상태로 보아 선박(船舶)은 침몰(沈沒)하면서 우현측(右舷側)으로 비스듬이 기울어져 있었음도 알게되었다. 특(特)히 선체외판(船體外板)에는 손상부식시키는 것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1cm정도 두께의 방현판(防舷板)을 별도(別途)로 부착(附着)시켰음도 알게되었고 선체외판(船體外板)두께도 12cm에 폭(幅)이 40~50cm정도의 송판(松板)들인것도 판별(判別)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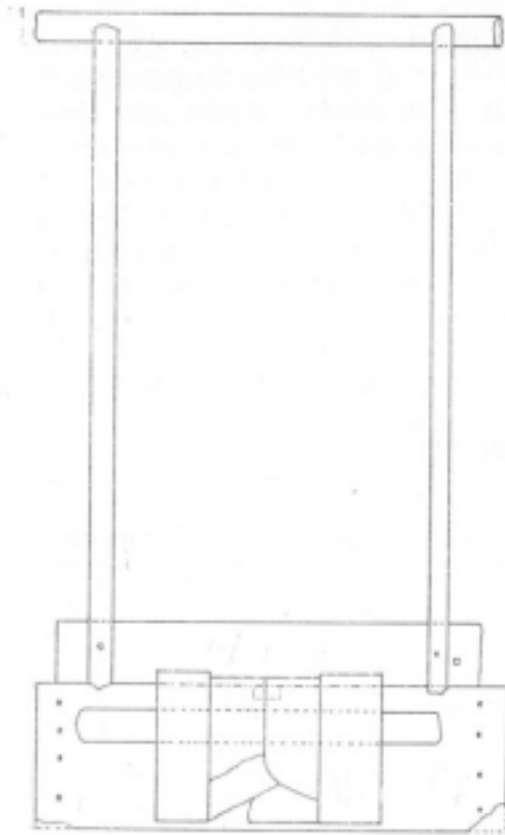
더욱 주목(注目)할 것은 클링커식(式)으로 겹붙인 부위(部位)에는 강(強)한 접착제(接着製)로 접착(接着)되어 해수(海水)의 침수(浸水)를 방지(防止)케 하였고 격벽(隔壁)도 12cm두께으

송판(松板)을 접착(接着)시켜 조성(造成)하였고 각(各) 격벽저부(隔壁低部)에는 선저(船底)의 오수(汚水)와 누진적(累進的)으로 침수(浸水)된 해수(海水)를 통(通)하게 하는 방형(方形)의 통수공(通水孔)이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인양(引揚)된 선체편중(船體片中) 第3 격벽(隔壁)을 복원(復元)하여 본바(삽) 3) 선체(船體)의 폭(幅)이 당초예정(當初豫定)하였던 6.6m보다 넓은 9.6m를 넘는 선박(船舶)이었음도 확인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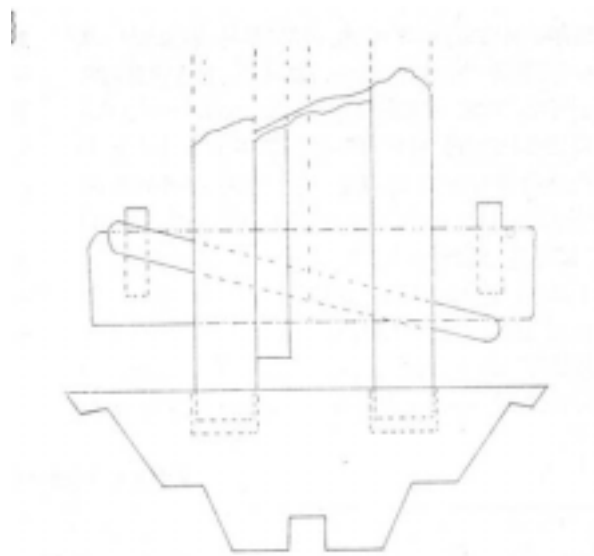
용골(龍骨)

第8次 발굴(發掘)에서 인양(引揚)된 선체편(船體片)은 176판(板)이었고 이중(中) 선미(船尾)에서 第3 격벽(隔壁)까지의 구간저부(區間低部)에 있던 용골(龍骨)을 절단인양(切斷引揚)한바 그 크기는 장(長) 7.35m 폭(幅) 67cm, 후(厚) 52cm에 무게 3ton에 가까운 거대(巨大)한 송목(松木)의 용골(龍骨)이었다. 1983년의 第9次 발굴(發掘)에서는 8次에서 실시(實施)한 선미측(船尾側) 1,2,3,4구역(區域)과 선수측(船首側) 8,9,10구역(區域)을 인양(引揚)한데 이어 가장 중심부(中心部)라 할 수 있는 4,5,6,7구역(區域)을 인양완료(引揚完了) 함으로서 선체인양작업(船體引揚作業)은 끝나치게 되었다. 특(特)히 9次 발굴(發掘)에서 큰 성과(成果)는 나머지 용골(龍骨)을 인양(引揚)하였는바 그 상태(狀態)는 거의 부식(腐蝕)되지 않은 상태(狀態)이었고, 폭(幅) 64cm에 후(厚) 50cm 장(長) 16m에 달하는 거대(巨大)한 송목(松木)이었으며 장(長) 11.3m 장(長) 4.7m의 2개(個)로 연결(連結)되어 있음도 확인(確認)케 되었다. 연결(連結)된 부위(部位)는 요철형(凹凸形)으로 결구(結構)되어 견고하게 처리(處理)하였으며 연결접착부위면(連結接着部位面)에는 직경(直徑) 12.3cm, 심(深) 3cm의 원형(圓形)홈을 파고 동경(銅鏡)(11.7×0.2cm)을 넣고 목제(木製)로 뚜껑을 덮어 놓은 것을 확인케되었다. 이상으로 불 때 침몰선(沈沒船)의 용골(龍骨)은 8차(次)에서 인양(引揚)한 선미측(船尾側) 7.4m를 합(合)하여 총(總) 24.49m가 (삽) 4)되며 3개(個)로 연결(連結)되어 있음도 판별(判別)케 되었다. 이로서 잔존(殘存)한 선체(船體)의 현장(現長)은 28.4m 현폭(現幅) 6.6m개입은 확인(確認)하였고 총(總) 438편(片)의 선체편(船體片)을 인양(引揚)하여 대략 침몰전(沈沒前)의 구조(構造)와 특징(特徵)도 파악(把握)케 되었다.



V 區域內構造物平面圖

V 구역내구조물평면도(區域內構造物平面圖)



V 區域內構造物正面圖

V 구역내구조물정면도(區域內構造物正面圖)

V. 결 언(結 言)

이상으로 9년에 걸친 10次の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한新安海底遺物發掘(新安海底遺物發掘)에서는 무엇보다도 22,007점(點)의 유물(遺物)과 동전(銅錢) 28ton, 18kg 자단목(紫檀木) 1017본(本), 선체편(船體片) 445편(片)에 달하는 막대한(莫大) 량(量)의 유물(遺物)이 인양(引揚)되었다. 이중(中)에서도 도자기(陶磁器)의 수(數)는 청자(靑磁) 12,359점(點), 백자(白磁) 5,303점(點), 흑유(黑釉) 506점(點), 잡유(雜釉) 2,305점(點) 백탁유(白濁釉) 188점(點), 계 20,661점(點)이고, 금속류(金屬類) 729점(點), 석재류(石材類) 43점(點), 기타(其他) 574점(點)임을 알게 되었으나 문제(問題)는 언제 선박(船舶)이 침몰(沈沒)되었으며 선적(船積)한 교역자기(交易磁器)는 어느 시대(時代)에 속(屬)하는 것인가 하는 것 등이 큰 문제(問題)였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명(解明)되지 않는 숙제(宿題)였다. 동전류(銅錢類)에서 최하년대(最下年代)에 속(屬)하는 지대통보(至大通寶)(1310年)¹⁾에 의해 당초(當初)에는 도자기류와 침몰선이 14C초(初)로 보았으나 후(後)에 「사사수부공용(使司帥府公用)」이라는 음각명문(陰刻銘文)에 의해 대략(大略) 1295년경(年頃)인 13C말(末)로 보는 견해(見解)²⁾와 1352年 또는 1354年³⁾인 14C 중엽(中葉)으로 보는 견해(見解)도 있었으며 한편 1332년부터 1367년으로 보는 견해(見解)⁴⁾도 나오게 되었고 필자(筆者)는 흑칠완(黑漆碗)의 저부(低部)에 주서(朱書)된 「신미혜당(辛未兮塘) 만만일숙조(萬萬一叔造)」라는 명문(銘文)에서 「신미(辛未)」을 1271年 1331年 1391年에서 1271年の 신미(辛未), 1331年の 신미(辛未)⁵⁾로 보는 견해(見解)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第8次 발굴시(發掘時) 인양(引揚)된 목간(木簡) 328점중(點中) 「지치삼년육월일일(至治三年六月一日)」라고 명기(銘記)된 목간(木簡)에 의해 서기(西紀) 1323年 6月 1日을 전후(前後)하여 선적(船積)되고 침몰(沈沒)된 것이 거의 확실(確實)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원대무역자기(元代貿易磁器)의 편년(編年)도 대략(大略) 14C초(初)를 전후(前後)한 것으로 정(定)하여 졌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자기류(磁器類)도 요지별(窯址別)로는 자주요(磁州窯), 여요(汝窯), 관요(官窯), 건요(建窯), 조요(鈞窯), 경덕진요(景德鎮窯), 용천요(龍泉窯), 길주요(吉州窯), 등(等)각요지(各窯址)의 것들이 총 막라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이 시대(時代)에 따른 각요지별(各窯址別)의 유물(遺物)을 면밀히 분류검토연구(分類檢討研究)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아울러 28ton이라는 막대한 량(量)의 동전(銅錢)과 상당량(相當量)의 주석(朱錫)을 선적(船積)한 하물(荷物)의 상관관계(相關關係)도 심도(深度)있게 비교검토(比較檢討)되어야 하며 또 칠기류(漆器類)의 검토(檢討)도 연구(研究)되어야 될 줄로 안다. 이상으로 볼 때 자기류(磁器類)를 비롯한 다양(多樣)한 유물(遺物)들에 대(對)하여는 이 방면(方面)의 전문가(專門家)들이 국적(國籍)을 초월해 공동연구(共同研究)에 참여(參與)해 확고(確固)한 결론(結論)이 나오도록 하여야 하며 당시(當時) 즉(卽) 14C경(頃)의 동양도자편년(東

1) 1977年 8月 29日부터 30日까지 2日間 國立中央博物館에서 新安海底遺物發見에 對한 세미나에서 陶磁器에 대한 編年을 대략 至大通寶(1310)에 기준하여 時代를 규정하여 봄.

2) ① 國立中央博物館 鄭良謨氏는 「使司帥府公用」에서 左右兩江宜慰使司를 合併하여 세운 廣西兩江道宜慰使司都元帥府라고 보아 元貞元年(1295年)으로 보았다.

② 馮先銘氏는 「文物」(1981 第6期)에서 大德元年(1297年)으로 보아 鄭良謨氏와 거의 意見을 같이하고 있다.

3) 考古學報(北京刊 1979, 第2期)에서는 浙東道宜慰使司都元帥府라고 보아 時代를 1352年以後부터 1354年사이로 보았다.

4) 沈春植氏는 「慶熙史學」(第 6,7,8 合輯 1980.2)에서 浙東道宜慰使司都元帥府의 略稱으로 보아 1332년부터 至正 27年인 1367년까지로 보았다.

5) 筆者는 「文化財」(文化財管理局, 第12號 1979.10.20)에서 拙稿 新安海底建物第次發掘概要를 紹介하면서 「辛未」를 1211年(辛未) 1271年(辛未) 1331年(辛未) 1391年(辛未) 靑華白磁發生時期를 1320年代로 본다면 대략 1271년부터 1331年の 辛未로 보아 도자기의 편년과 침몰선의 年代를 추정하여 보았다.

洋陶磁編年)과 무역자기(貿易磁器)에 대(對)한 공백기(空白期)를 메울수 있는 결과(結果)를 낳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특(特)히 침몰선체(沈沒船體)에 대한 결론(結論)은 서울대학교공과대학(大學校工科大学)의

新安海底遺物年次別引揚現況

區分	年 度	種 類 別								(點) 計	銅錢	(本) 紫檀木	(片) 船體片
		靑磁	白磁	黑釉	雜釉	白濁釉	金屬	石材	其他				
第1次	1976.1.26 ~11.2	52	20	2	23				15	112			
第2次	1976.11.9 ~12.1	1,201	421	54	9	18	12		169	1,884			
第3次	1977.6.27 ~7.31	19,00	1,866	54	604	74	264	4	138	4,906			
第4次	1978.6.16 ~8.15	2,787	1,289	96	623	63	86	11	91	5,046			
第5次	1979.9.1 ~7.20	76	21	29	101		6			233		303	
第6次	1980.6.5 ~8.4	1,112	200	30	66	2	31	2	18	1,461	1차 ~7차	20	8
第7次	1981.6.23 ~8.22	1,528	668	63	443	17	105	5	35	2,564	3톤	3	18
第8次	1982.5.5 ~9.30	983	328	41	220	6	109	9	45	1,741	18톤	452	176
第9次	1983.5.29 ~11.25	1,013	307	61	467	3	102	6	47	2,006	7톤	334	239
第10次	1984.6.1 ~8.17	1,669	178	72	48	4	14	6	16	2,007	18kg	4	3
最 終 確 認	1984.9.13 ~9.17	38	5	2	1	1				47		1	1
計		12,359	5,303	506	2,305	188	729	43	574	22,007	28톤 18kg	1,017	445

신안해저유물연차별 인양현황
(新安海底遺物年次別 引揚現況)

조선공학과(造船工學科) 김재근(金在瑾) 황종홍(黃宗屹) 두 교수(教授)의 밝힌바를 요약소개(要約紹介)하면서 그칠가 한다.

첫째 선박(船舶) 밑에는 거대(巨大)한 용골(龍骨)이 있어 선체전체(船體全體)를 지탱하고 있고 둘째 선박(船舶)의 저부(低部)는 첨저형(尖低形)이며 셋째 선수(船首)는 제형(梯形)인 사다리꼴형(形)을 이루고 있다.

넷째, 선체외판(船體外板)은 겹붙이기식(式)인 클링커식(式)으로 접합(接合)되어 있으며, 좌우현(左右舷)은 각각(各各) 14판(板)식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돛대(마스트)가 2개(個)인 쌍범선(雙汎船)이며 마스트의 하부(下部)는 용골(龍骨)에 고정(固定)된 받침위에 2개(個)의 지주(支柱)를 세워 지탱(支撐)하였다. (2개(個)의 마스트 고정장치인양(固定裝置引揚) 여섯째, 선체 5구역내(船體 5區域內)에 수조(水槽)로 추정되는 목제(木製)탱크 (3.30×2.33×0.75cm)가 매우 큰 편이다 하는 것으로 침몰선(沈沒船)의 상태(狀態)를 거의 파악(把握)케된 것이 지대(至大)한 성과(成果)라 본다.